

# KL-net, 1분기매출 38억1,300만원



박정천  
한국물류정보통신 대표이사

- 금융사고 불구하고 적극적 영업활동으로 SI부문 매출 증가
-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Visioning 워크샵 개최

국가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인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대표 : 朴正天, www.klnet.co.kr)는 지난 1분기 매출이 38억1천3백만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의 42억9천3백만원보다 11.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억4천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억9천만원에 비해 38.2%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도 1분기 실적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EDI(전자문서교환)요금 인하와 상품매출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사고로 인해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 에도 불구하고 SI(개발 및 판매영업)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한국물류정보통신측은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이며,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한국물류정보통신의 대외적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부정보증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국물류정보통신은 그 후 새로운 경영진의 영입 및 조직개편 등의 혁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였으며, 관련 상호저축은행과의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자체 보유자금으로 82억원의 공탁을 완료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시켰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정보증 금융사고를 극복하고 직원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22일 1박2일간 경기도 가평 한바다연수원에서 전직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7개 분임조로 나누어 'KL-Net의 장기발전방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고 박정천 사장의 강평이 있었는데, 박 사장은 “이번 워크샵이 전직원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주주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직원 모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도록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물류



# 현대택배, 중국을 교두보로 해외시장 석권 도모



김 병 훈  
현대택배 대표이사

현대택배는 이제 국내 택배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중국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들과 경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각오이기 때문이다.

“중국 상해의 교두보를 기반으로 물류사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2010년까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택배 김병훈 사장의 야심찬 중장기 핵심사업계획을 지난 5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물류산업은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어 택배 등 기존 주력 사업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등 입지를 견고히 하고, 새 성장동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고 말하며, “물류인프라, 인적자원, 선진수준의 IT기술 등 그동안 쌓아온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사업과 접목해 세계 일류 물류회사로 성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북한에 이어 거대시장인 중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국내 기타 경쟁업체보다 먼저 마련하였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대이상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현대택배가 해외물류시장에 본격진출하기 위해 작년 9월 중국 상해에 설립한 현대아류이 올해 35,000TEU의 물량과 3천만불의 기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해, 올 물량 목표를 40,000TEU에서 60,000TEU로 상향조정했다.

현대아류은 국내제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나, 낙후된 물류시스템으로 국내 우수 물류기업들이 진출해 최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지역 중의 하나인 청도를 비롯, 상해, 천진, 심천 등 중국내 주요 물류거점에 지점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현지 주재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물류컨설팅을 위하여 한국 본사에서 물류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상반기 중에 파견한다.



향후 해운·항공·복합운송 외에 중국내 3자물류 및 통관, 육상운송, 택배사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종합물류회사로 거듭나기를 현대아류은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



# FedEx, '올드보이' 필름 일본 운송



- 칸 수상 '올드보이' 극장용 및 원본 영화 필름 일본 운송  
- '올드보이', '태극기 휘날리며', '오아시스' 등 한국 영화의 해외수송 역할

세계 최대의 항공 특송회사 FedEx([www.fedex.com/kr](http://www.fedex.com/kr), 대표이사: 데이빗 카든)는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차지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필름을 일본으로 운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FedEx는 이번에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올드보이'의 일본 내 상영을 위해 국내 개봉 극장용 필름과 원본 필름을 동시에 일본 배급사 도시바 엔터테인먼트로 운송하는 책임을 맡았을 뿐 아니라, '올드보이'의 프랑스 내 홍보를 위해 영화 테이프 및 홍보 포스터 등의 영화 홍보자료를 프랑스로 운송했다.

또한 FedEx는 국내관객 1천만을 돌파하여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샘플 필름을 일본 및 홍콩으로 운송했다.

FedEx는 배급사인 쇼박스로부터 '태극기 휘날리며' 필름 운송에 관한 선적 주문을 받아 3월 일본 수출용 샘플 필름을 운송한데 이어, 지난 달 홍콩 필름 운송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외에도 FedEx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오아시스'의 필름을 프랑스로 운송하는 등 한국 영화의 해외 수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edEx코리아의 데이빗 카든사장은 FedEx의 한국 영화 운송에 대해, "고객의 물건을 가장 빠르면서 소중히 다루어 전세계 215개국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는 FedEx의 특별한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업계에서 인정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FedEx가 한국 최고의 영화 필름들을 운송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FedEx를 통해 더욱 많은 한국영화가 수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류**